

KORDI ISSUE PAPER



2022-1

발행일 2022.12.14. / 발행인 김미곤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상호돌봄의 가치, 노노케어사업의 성과와 과제¹⁾

김 가 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부연구위원
(kwkim@kordi.or.kr)

요약

- 본고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노노케어’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 이를 위해 2022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 352명, 수혜노인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 특성 및 교육 현황, 사업 이용 전후 변화 및 성과 등 관련 특성을 분석하였음
- 이상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를 고려한 노노케어 운영, 노노케어 참여자 및 수혜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확충, 지역사회 돌봄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안함

1. 연구배경 및 목적

▷ 그간 노인일자리사업은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 보충적 (supplementary), 보완적(complementary) 역할로서 기여해 왔음.

- 특히 ‘노노케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이듬해인 2005년 ‘노인간병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중 하나임.

1) 본고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김가원 외(2022)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것임.

- ‘노노케어’ 사업은 동년배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말벗 등 정서적 지원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에게는 보충적 소득 지원, 사회활동에 따른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 노인복지 모델로서 효과가 있음. 또한 돌봄 대상 노인에게는 동년배와의 정서적 교류로 우울감 및 소외감 해소 등 심리·정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됨(홍석원 외, 2015).

▷ 이에 본 고에서는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 수혜노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노케어 사업의 특성, 교육 현황, 사업 이용 전후 변화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향후 노노케어 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노노케어 사업의 현황

▷ ‘노노케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노케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안부 확인, 말벗 등 생활안전 점검이 주된 역할임.
-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복지형 내 ‘노노간병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 현재 공익활동 내 ‘노노케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른 공익활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참여노인의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으로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함.
- ‘노노케어’ 수요자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 노인은 제외함.

〈표 1〉 노노케어 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추진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교육복지형 ‘노노간병사업’ · (‘06년) 복지형 ‘노노케어사업’ · (‘07년) 복지형 ‘거동불편요보호자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 (노인)가구주거개선 등’ · (‘08년) 복지형 ‘돌봄서비스사업’, ‘복지서비스지원사업’ · (‘09년~‘13년) 복지형 ‘거동불편노인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 · (‘11년) 복지형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 · (‘11년~‘14년) 복지형 ‘소외계층 돌봄지원사업’ 내 노노케어(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 생활시설 이용자 돌봄지원사업) · (‘14년) 복지형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및 안부확인사업’ · (‘14년) 복지형 ‘거동불편 노인 가사 및 활동보조사업’ · (‘14년) 복지형 ‘경증치매 노인 활동보조사업’ · (‘14년) 복지형 ‘경로당 노노케어 사업’ · (‘15년) 공익활동(전국형) ‘지원봉사활동’ · (‘15년) 공익활동(지역형)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 (‘16년~) 공익활동 ‘노노케어’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안부 확인, 말벗 등 생활안전 점검

구분	내용
참여자 기준 및 활동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12개월,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급여) 1인 월 270,000원 · (재원) 지자체 경상보조
수요자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조·손 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노인 - (우선순위)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 필요성 높은 순으로 지원 - (유사중복사업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 노인 제외 : 자활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비(보훈처), 방문요양서비스 등 - (예외적 허용) 수요자의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 허용

자료: 각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재작성.

▷ 최근 5년간('17~'21년) '노노케어' 참여자 및 수혜자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규모는 2021년 기준 68,827명이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함('17년 대비 '21년 18.6% 감소, 최근 5년간 연평균 4.9% 감소).
- '노노케어' 수혜노인의 규모는 2021년 기준 103,765명이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함('17년 대비 '21년 25.9% 감소, 최근 5년간 연평균 7.1% 감소).
- '노노케어' 참여자와 수혜자 비율은 평균 1: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2〉 노노케어 참여자, 수혜자 현황(2017~2021년)

(단위: 명)

구분	5년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노노케어 참여자	80,491	84,589	85,530	84,678	78,833	68,827
노노케어 수혜자	125,685	140,055	137,456	133,231	113,916	103,765
참여자:수혜자	1 : 1.6	1 : 1.7	1 : 1.6	1 : 1.6	1 : 1.4	1 : 1.5

자료: 2017~2021년 각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재작성.

▷ 최근 5년간('17~'21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성별은 여성이 80%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은 '21년 76.9세로 나타나, '17년(75.4세) 대비 평균 1.5세가 증가하였음. 특히 '노노케어' 참여노인 중 '8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17년 19.2%에 불과하였으나, '21년 31.7%로 1.7배 증가하였음.

〈표 3〉 노노케어 참여자 성별, 연령별 분포(2017~2021년)

(단위: 명, %, 세)

연도	전체 ¹⁾	성별 (%)		연령대별 (%)					평균연령
		남성	여성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2017	92,309 (100.0)	20.1	79.9	11.5	29.9	39.4	16.4	2.8	75.4세
2018	93,638 (100.0)	18.8	81.2	9.8	28.1	39.8	18.8	3.5	75.9세
2019	93,362 (100.0)	18.3	81.7	9.0	26.3	38.5	21.8	4.4	76.3세
2020	87,013 (100.0)	18.1	81.9	8.3	25.8	37.0	23.3	5.6	76.7세
2021	77,917 (100.0)	18.3	81.7	8.5	25.1	34.7	25.1	6.6	76.9세
5년 평균	-	18.7	81.3	9.4	27.0	37.9	21.1	4.6	76.2세

주 1) 중도포기자가 포함된 누적참여자 수

자료: 2017~2021년 각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재작성.

▷ 최근 5년간('17~'21년) '노노케어' 참여자의 가구형태, 교육수준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가구형태는 '21년 기준 독거(42.0%), 노인부부(31.1%), 가족동거 등(26.9%)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독거 비중은 '17년 대비 2.3% 증가한 반면, 가족동거 등 비중은 3.5% 감소하였음.
-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교육 수준은 5년 평균 무학 16.9%, 초졸 51.6%, 중졸 19.6%, 고졸 9.6%, 전문대졸 이상 2.4%로 나타남(유효 응답값만을 제시한 것임).

〈표 4〉 노노케어 참여자 가구형태,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연도	전체 ¹⁾	가구형태별 (%)			교육수준별 ²⁾ (%)				
		독거	노인부부	가족동거 등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17	92,309 (100.0)	39.7	29.9	30.4	18.1	50.4	18.4	11.0	2.2
2018	93,638 (100.0)	41.2	29.6	29.2	19.7	56.1	20.5	1.2	2.4
2019	93,362 (100.0)	41.9	29.5	28.6	17.0	50.6	18.9	11.3	2.2
2020	87,013 (100.0)	42.1	30.0	27.9	15.6	50.9	19.4	11.8	2.3
2021	77,917 (100.0)	42.0	31.1	26.9	14.0	50.1	20.7	12.6	2.6
5년 평균	-	41.4	30.0	28.6	16.9	51.6	19.6	9.6	2.4

주 1) 중도포기자가 포함된 누적참여자 수

2) 교육수준은 일부 응답자의 결과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총인원 대비 유효 응답율: '17년 54.9%, '18년 62.8%, '19년 72.5%, '20년 73.5%, '21년 74.4%)

자료: 2017~2021년 각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재작성.

3. 연구내용 및 방법

- ▷ (조사 대상) 2022년 현재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및 수혜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참여노인 352명, 수혜노인 305명임.
- ▷ (조사 방법) 2022년 7월~8월 4주 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 ▷ (조사 내용) 본 고에 제시된 조사 항목은 일반적 특성, 돌봄서비스 및 교육 특성, 노인일자리 참여 특성, 전후 변화 및 사업 성과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됨.

〈표 5〉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구유형, 교육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수혜노인),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돌봄서비스 및 교육 특성	• (참여노인) 현재 돌봄 직무 및 역할, 희망 돌봄 직무 및 역할, 보유 자격, 돌봄 활동 관련 교육 경험 • (수혜노인) 노노케어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내용, 노노케어 이용 안내 및 교육 경험
노노케어 이용 특성	• (참여노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횟수, 향후 참여 의향, 향후 희망하는 노노케어 활동 조건 • (수혜노인) 노노케어 이용 횟수, 향후 노노케어 이용 의향, 향후 희망하는 노노케어 이용 조건
전후 변화 및 사업 성과	• (참여노인) 노노케어 참여 전후 변화, 돌봄 제공자로서 지역사회 공헌 인식 • (수혜노인)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 전후 변화

- ▷ (분석 방법) 노노케어 참여자 및 수혜자의 제 특성에 관한 기술통계, 변인들의 차이, 상관관계, 그리고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노노케어 참여자 및 수혜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
 -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 노노케어 참여자와 수혜자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 t-test를 실시함.
 - 셋째, 노노케어 참여자의 지역사회 공헌 인식과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노노케어 참여자의 지역사회 공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4. 주요 연구결과²⁾

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 (성별) 여성 비율은 참여노인이 수혜노인에 비해 19.1%p 더 많으며, 통계적으로도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chi^2=32.447$, $p<.001$),
- ▷ (연령) 평균 연령은 참여노인 73.8세($SD=4.9$), 수혜노인 79.2세($SD=6.3$)로 나타났으며, 참여노인의 연령이 수혜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음($t=-5.474$, $p<.001$),
- ▷ (거주지역) 참여노인, 수혜노인 각각 동부 비율이 81.3%, 76.4%로 높게 나타남.
- ▷ (가구유형) 1인가구(독거노인)가 참여노인, 수혜노인 59.7%, 67.5%로 가장 높았음.

〈표 6〉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참여노인 (n=352)	수혜노인 (n=305)	χ^2 / t	[참고] 노인 전체 ³⁾		
성별	남성	15.3	34.4	32.447***	43.7	
	여성	84.7	65.6			56.3
연령별	69세 이하	7.1	7.2	-	34.0	
	70~74세	27.2	16.7			24.0
	75~79세	34.7	25.3			17.8
	80세 이상	31.0	50.8			24.2
	평균(세)	76.8(4.9)	79.2(6.3)			-5.474***
거주지역	동부	81.3	76.4	2.323	75.8	
	읍면부	18.7	23.6			24.2
가구유형	1인가구	59.7	67.5	6.535	36.1	
	노인부부	31.3	23.6			35.2
	자녀동거, 기타	9.0	8.9			28.7
교육수준	무학	12.3	25.3	30.791***	10.6	
	초졸	51.6	36.2			31.7
	중졸	20.5	16.8			23.3
	고졸	13.1	17.1			28.4
	대졸 이상	2.5	4.6			5.9
월 생활비 지출액	50만원 미만	6.5	9.0	-	-	
	50~100만원 미만	56.3	52.4			
	100~150만원 미만	27.6	26.3			
	150~200만원 미만	6.3	7.0			
	200만원 이상	3.3	5.3			
	평균(만원)	86.8(62.4)	99.7(124.8)			-1.638

주 1) 우리나라 노인 전체의 경우, '성', '연령', '가구유형'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내 202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9,018천명), '거주지역', '교육수준'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10,097명), '기초연금 수급률'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2.7.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21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2) $p<.05$, ** $p<.01$, *** $p<.001$

2) 본 내용은 '22년 노노케어 참여자 및 수혜자 전체 중 일부(352명, 305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이들 참여자와 수혜자는 상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로 매칭된 관계가 아님.

2) 돌봄서비스 및 교육 관련 특성

▷ (돌봄서비스) 현재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받는) 서비스는 말벗·안부확인(63.4%, 60.0%), 가사 지원(23.9%, 36.7%), 놀이 및 체조(10.8%, 2.3%), 외출 동행(1.1%, 0.7%), 기타(0.8%, 0.3%) 순으로 나타남.

〈표 7〉 현재 제공하는(받는) 돌봄 서비스

(단위: %)

구분	참여노인 (n=347)	수혜노인 (n=284)
말벗, 안부확인	63.4	60.0
가사 지원	23.9	36.7
외출 동행	1.1	0.7
놀이, 체조	10.8	2.3
그 외	0.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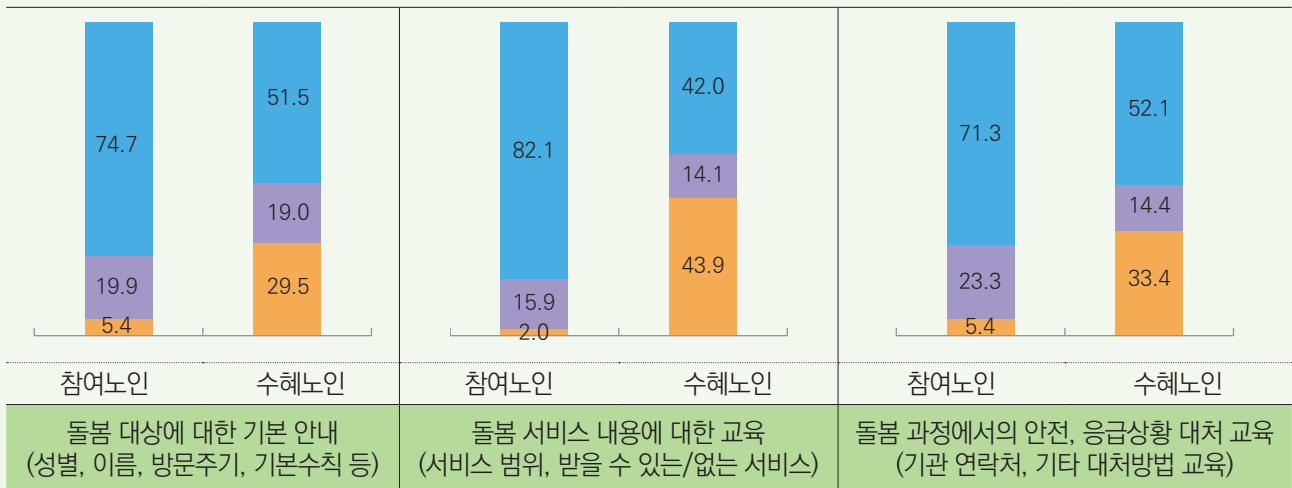
▷ (교육 현황)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에 대해 수혜노인은 참여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전 안내 및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서비스에 대한 기본 안내에 대해 29.5%가 '전혀 몰랐다'고 응답하여 참여노인과 차이(t=8.098, p<.001)를 보임.
- 둘째, 서비스 이용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교육도 43.9%가 '전혀 몰랐다'고 하여 참여노인과 차이(t=14.094, p<.001)가 나타남.
-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안전,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안내, 교육도 '전혀 몰랐다'는 응답이 33.4%로 높게 나타나 참여노인과 차이(t=7.818, p<.001)를 보임.

[그림 1] 돌봄 제공자, 대상자 교육 현황

■ 전혀 몰랐음 ■ 약간 들었음 ■ 자세히 들었음

(단위: %)



주) '1=전혀 몰랐음', '2=약간 들었음', '3=자세히 들었음'의 3점 척도로 분석함.

3) 노노케어 이용 특성

- ▷ (이용 희망) 향후 ‘노노케어’에 대해 ‘계속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은 참여노인, 수혜노인 각각 98.6%, 93.1%로 높게 나타남.

〈표 8〉 향후 노노케어 이용 의향

(단위: %)

구분	참여노인 (n=347)	수혜노인 (n=284)
계속 이용하고 싶다	98.6	93.1
이용하고 싶지 않다	0.9	3.6
잘 모르겠다	0.5	3.3

- ▷ (희망 조건) 적정 방문 횟수에 대해 ‘노노케어’ 참여노인은 주3회가 66.0%로 높게 나타났으나, 수혜노인은 주2회 34.8%, 주3회 39.8%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남. 또한 적정 방문 시간에 대해서도 ‘노노케어’ 참여노인은 3시간이 87.6%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수혜노인은 3시간 52.8%, 1~2시간 41.9%로 나타나 ‘노노케어’ 돌봄서비스 횟수, 시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9〉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희망 참여 조건

(단위: %, 회, 시간, 만원)

구분	참여노인 (n=347)	수혜노인 (n=284)	t-value
개인 또는 팀 활동 선호			
혼자 활동(방문오기를) 희망	41.8	40.1	
팀 활동(방문오기를) 희망	49.0	33.1	
상관없음	9.2	26.8	
적정 방문 횟수 (1가정/주)			
1회	1.4	12.3	
2회	17.0	34.8	
3회	66.0	39.8	
4회	4.6	4.2	
5회~7회	11.0	8.9	
평균(회)	3.07(0.86)	2.65(1.12)	5.228***
적정 방문 시간 (1가정/회)			
1~2시간	11.2	41.9	
3시간	87.6	52.8	
4시간 이상	1.2	5.3	
평균(시간)	2.89(0.53)	2.43(1.00)	6.989***
적정 활동비			
20~30만원 미만	7.4	-	
30~40만원 미만	69.8		
40~50만원 미만	14.2		
50~60만원 미만	6.9		
60~70만원 미만	1.7		
평균(만원)	33.63(7.06)		

주 1) * p<.05, ** p<.01, *** p<.001

2) 무응답 총 26명 제외(노노케어 참여노인 5명, 노노케어 수혜노인 21명)

4) 전후 변화 및 성과

- ▶ (수혜노인 전후변화) ‘노노케어’ 수혜노인의 긍정적인 변화(약간좋아졌다+매우좋아졌다)는 ‘외로움, 우울 등 마음상태 개선’이 6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생활환경의 개선’(58.7%), ‘일상생활에 도움’(56.8%), ‘건강상태 개선’(47.9%), ‘경제적 도움’(33.8%) 순으로 나타남.

〈표 10〉 돌봄 대상자의 이용 전후 변화

(n=305, 단위: %, 점)

구분	수혜노인					평균(점)
	전혀 변화없다	별로 변화없다	보통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신체적 건강상태 개선	9.1	19.7	23.3	29.5	18.4	3.28 (1.2)
외로움, 우울 등 마음상태 개선	8.9	13.8	17.0	35.1	25.2	3.54 (1.3)
정보를 얻거나 외출 시 도움 등 일상생활에 도움	7.5	16.4	19.3	31.5	25.3	3.50 (1.2)
끼니 해결, 생필품 등 경제적인 도움	18.6	26.9	20.7	19.7	14.1	2.84 (1.3)
청결상태 등 생활환경의 개선	9.8	15.4	16.1	27.5	31.2	3.55 (1.3)

주: 1)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분석함.

- ▶ (참여노인 전후변화)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긍정적인 변화(약간좋아졌다+매우좋아졌다)는 ‘경제적 보탬’(95.1%),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92.1%), ‘신체적 건강’(92.0%), ‘심리적 건강’(91.2%) 순으로 나타났고, 모든 영역에서 9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음.
- ▶ (참여노인 지역사회 공헌 인식)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지역사회 공헌 인식에 대한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그렇다)을 살펴보면, ‘지역의 사회문제 이해 노력’(91.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돌봄 필요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노력’(89.2%), ‘동료들과 협력’(84.9%), ‘기관으로부터 전문성 인정’(81.2%)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 돌봄 제공자의 이용 전후 변화

(n=347, 단위: %, 점)

구분	참여노인					평균(점)
	전혀 변화없다	별로 변화없다	보통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경제적 보탬으로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	-	4.8	58.5	36.6	4.32(0.56)
이전보다 여가시간을 활기차게 보내서 몸이 건강해졌다	-	0.3	7.7	49.7	42.3	4.34(0.63)
이전보다 외로움과 우울한 마음이 줄어들었다	-	-	8.8	48.9	42.3	4.34(0.33)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	0.3	7.7	56.3	35.8	4.28(0.61)

주: 1)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분석함.

〈표 12〉 돌봄 제공자의 지역사회 공헌 인식

(n=347, 단위: %, 점)

구분	참여노인					평균(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사회에 노인돌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	0.3	8.5	68.2	23.0	4.14(0.56)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	0.6	10.2	58.8	30.4	4.19(0.6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노인들과 서로 협력한다	0.6	2.6	12.5	55.1	29.8	4.12(0.74)
돌봄 활동에 있어서 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0.3	2.0	16.5	56.8	24.4	4.03(0.72)

주: 1)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분석함.

5) 노노케어 참여자의 지역공헌도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지역사회공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17.543($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지역사회공헌 인식 수준을 29.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교육이수 수준이 높을수록($\beta = .147, p < .01$),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beta = .549, p < .001$) 지역사회공헌 인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음.

〈표 13〉 노노케어 참여자의 지역사회 공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Model 1		Model 2	
	B	β	B	β
constant(상수)	15.861		1.931	
성별 ^a	.388	.065	.067	.011
연령	.008	.019	.037	.083
거주지역 ^b	-.276	-.050	-.196	-.036
독거여부 ^c	-.111	-.025	-.025	-.006
학력 ^d	-.319	-.054	-.048	-.008
자격여부 ^e	-.021	-.003	.632	.081
교육이수 수준			.188	.147 **
활동경력			-.034	-.044
참여만족도			.575	.549 ***
R ²	.009		.316	
Adjusted R ²	-.009		.298	
F	.506		17.543***	

주 1) 더미변수 기준범주: a여성, b동부, c독거, d고졸이상, e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있음

2) * $p < .05$, ** $p < .01$, *** $p < .001$

5. 제언 및 함의

- ▶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따라, 다양한 돌봄 수요를 고려한 ‘노노케어’ 사업 운영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계속해서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노노케어’ 참여자, 수혜자 모두 90% 이상 높은 비중을 보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17.5%로 1970년(3.1%)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고, 2070년이 되면 46.6%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22).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향후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노노케어’ 참여자, 수혜자의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수요 의견을 살펴본 결과, ‘노노케어’ 참여노인은 주 3회 방문을 희망하는 비율이 66.0%로 가장 많았고, 2회(17.0%), 5회 이상(11.0%) 등 순으로 나타남. ‘노노케어’ 수혜노인은 주3회, 주2회 희망 비율이 각각 39.8%, 34.8%로 비슷한 수준이며, 주1회를 희망하는 경우도 12.3%로 높음. 참여노인이 수혜노인에 비해 평균 0.42회 더 유의하게 많이 방문하기를 희망함($t=5.228$, $p<.001$).
 - 1회당 방문 시간도 참여노인은 3시간을 희망 비율이 87.6%로 대다수를 차지, 수혜노인은 3시간 52.8%, 1~2시간 41.9%로 비슷한 수준임. 참여노인이 수혜노인에 비해 1회 평균 0.46시간 더 유의하게 긴 시간 방문하기를 희망함($t=6.989$, $p<.001$).
 - 향후에는 ‘노노케어’ 참여자 활동비와 관련하여 고정된 활동량(횟수, 시간)을 일률적으로 ‘노노케어’ 수혜자에게 바로 적용하여 매칭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즉 ‘노노케어’ 수혜자가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양을 고려해, ‘노노케어’ 참여자 1인이 방문하는 가정을 1~3가정 등 보다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 ‘노노케어’ 참여자, 수혜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확충되어야 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노케어’ 이용과 관련된 사전 교육을 ‘전혀 몰랐다’는 응답이 ‘노노케어’ 참여자는 5.4~7.0%, ‘노노케어’ 수혜자는 29.5~43.9%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노노케어’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함.
 -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 간 협력적인 돌봄관계 수립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Brandsen(2009)은 ‘돌봄이 단지 집을 청소하고 노인을 돌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욕구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되는 활동’이라고 하여 돌봄의 ‘관계’적 속성을 강조하였음. 즉 돌봄 이용자에 대한 돌봄 제공자의 지지적 역할 수행이 요구됨.
 - 돌봄 이용자에 대한 돌봄 제공자의 지지적 역할로서 서비스 선택에 대한 기획의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격려하며, 적절한 돌봄 정보의 제공, 돌봄 이용자들의 감정 수용 및 긍정적 피드백 제공 등 전략적 개입을 하여야 함(김가원·허준수, 2021). 이를 위해 ‘노노케어’ 참여자의 돌봄서비스 역할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노노케어’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이용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 지역사회 내 상호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노노케어’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돌봄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노케어’는 참여노인에게 경제적 도움(95.1%) 뿐 아니라, 자아실현(92.1%), 신체적 건강(92.0%), 심리적 건강(91.2%) 개선을 가져옴. 또한 ‘노노케어’ 수혜노인에게는 심리적 건강(60.3%), 생활환경 개선(58.7%), 일상생활 도움(56.8%), 신체적 건강(47.9%), 경제적 도움(33.8%)의 의미를 지님.
 - 특히 ‘노노케어’ 참여자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인식은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사업 참여 전후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남($\beta=0.549$, $p<.001$). 따라서 ‘노노케어’ 참여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노인일자리사업’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통한 동기부여, 다양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노노케어’ 수혜노인의 경우,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으로서 돌봄의 연속성을 제고하여야 함. 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 체계와 연계하여 돌봄 보장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강구하여야 함. 노인돌봄체계에서 서비스 제공주체 간 분절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노노케어’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으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돌봄협의기구에 참여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가원, 허준수 (2021). 노인 1인가구의 자기돌봄 유형화 및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6(2): 159~188.
- 통계청. (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2.9.5., 보도자료.
- 홍석원, 김영은, 박고은, 방효정, 노진원(2015). 노노케어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간접적 건강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 Brandsen, C. (2006). A public ethic of care: Implications for long-term care. In M. Hamington & D. C. Miller (Eds.), *Socializing care* (pp. 205-226). Lanham, MD: Rowmand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